

스님들의 석 달 천막수행 “고행 아니라 공부입니다”

상월선원 ‘비닐하우스’ 동안거 난방 없이 옷 한 벌, 하루 한 끼 묵언하며 14시간 이상 좌선해야 “욕망·혐오 넘어 깨달음 얻겠다”

11일 오후 3시,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산 자락에서 상월선원(霜月禪院) 동안거 결제 입재식이 열렸다. 어느 동안거 결제 풍경과 사뭇 달랐다. 법당은 가건물 같은 비닐 천막이었다. 그 뒤 언덕 위에 선원이 있었다. 그런데 선원도 비닐 천막이었다. 그 안에 1인용 텐트9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11일부터 9명의 출가자가 겨울 석달 간 문밖출입을 하지 않고 이곳에서 지낸다. 천막 안에는 난방 시설도 없다.

재가 신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이날 낮부터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등에서 1000여 명의 신자가 입재식에 참석했다. 신병교육대에 입대하는 아들을 염려하고 응원하는 부모와 님은 표정이었다. 선원 주변은 고요한 산골이 아니었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조계종은 새로 들어설 아파트 단지의 끝자락에 상월선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진각·재현·심우·자승·성곡·호산·무연·도람·인산 등 9명의 스님이 터만 마련된 이곳에 미리 들어와 ‘천막선원 동안거’에 들어갈 참이었다.

선방에서 안거를 날 때는 참가자의 동의하에 규칙을 마련한다. 이를 ‘선원 청규’라 부른다. 천막선원의 동안거 청규는 엄격하다. 하루 14시간 이상 방석 위에 앉아 좌선해야 한다. 또 식사는 하루 한 끼만 먹는다. 옷은 한 벌만 허용되고, 삭발과 목욕은 금지된다. 단, 양치는 허용된다. 또 천막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고 외부인과 접촉도 금지된다. 수행자들끼리도 묵언(默言)한다. 말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보드에다 글자를 써서 소통한다.



올 겨울 석 달간 상월선원에서 동안거에 들어가는 9명의 스님. 왼쪽부터 도람·재현·진각·심우·성곡·자승·호산·무연·인산 스님. 진각 스님은 “고행이 아니라 공부가 목적이다”고 말했다.



경기도 하남시 위례신도시 인근에 동안거 수행을 위해 마련된 비닐하우스 상월선원. 11일 동안거 입재식을 마친 9명의 스님은 난방시설이 없는 이곳에서 겨울 석 달간 문밖 출입을 금한 채 하루 한 끼를 먹으며 수행한다. 스님들이 각자 머물 1인용 텐트가 보인다.

강정현 기자

마지막으로 이 규정을 어겨서 퇴방할 때는 조계종 승적에서 자동 제적된다. 9명의 스님은 이미 총무원에 ‘규약을 어길 시 조계종 승적에서 제외한다’는 각서와 제적원을 제출한 상태다. 한마디로 배수진을 친 셈이다.

통도사 출신에 그간 30여년을 났다는 진각(57) 스님을 천막선원으로 들어가 기 직전에 만났다. “부처님도 6년 고행을 한 뒤 수행 방식을 바꾸었다. 동안거는 마음을 뚫는 것이 목적이니, 고행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진각 스님은 “하루 한 끼 먹고, 선

방문을 잠그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모두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서다. 고행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바깥에서는 고행이라 볼지 몰라도, 이로 인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편한 것이 세상 어디에 있겠나”라고 답했다.

총무원장을 두 차례 역임한 자승 스님도 방부(동안거 명단)에 있었다. 자승 스님은 “인터뷰는 하지 않을 작정”이라며 사양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자승 스님 총무원장 재임 시절에 상월선원 터를 마련했기에, 이번 동안거에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호산 스님은

“우리의 정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부대중 모두의 결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고, 심우 스님은 “머리를 깎고 절에 들었던 행자의 마음으로 돌아가 정진에 임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날 입재식에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상월선원에 대해서만 따로 내린 동안거 결제 범어가 낭독됐다. “가지가지의 마음이 나면 만 가지 진리의 법이 현전(現前)하고/가지가지의 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 가지 진리의 법이 없음이라… 구름이 건하니 산마루가 드러나고/밝은 달은 물 위에 떠 있음이로다.”

이어서 9명 스님을 대표해 진각 스님이 고불문을 낭독했다. 동안거에 들어가기 직전 부처님께 고하는 글이다. “당신께서는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범문을 굴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나는 욕망의 길이요, 하나는 혐오의 길이다. 고통의 나락으로 이끄는 이 두 갈래 길을 떠나 그 가운데 길을 걸어라. 이 길을 걸으면



검은 천으로 덮인 비닐하우스 천막 선원. 석 달 간 입재한 스님들은 문밖 출입이 금지된다.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늘어나고,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며, 모든 고통이 소멸할 것이다.”

진각 스님은 또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을 언급하며 “저희에겐 이 천막이 보리수가 될 것입니다. 서릿발 같은 기상에 달을 벗 삼을 마음만 갖춘다면 당신의 길에서 어찌 물러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수행처에 ‘상월선원’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라며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던 날, 저희라고 어찌 당신의 가르침에 생명을 바치겠노라 맹세하지 않았겠습니까. 고작 한 톨이면 족할 음식에 흔들리고, 고작 한 벌이면 족할 옷에서 감촉을 탐하고, 고작 한 평이면 족한 잠자리에서 편안함을 구한 탓에 초발심이 흐려졌다 생각하니,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수행자의 소회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저희도 당신을 따라 맹세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버려도 좋다. 가죽과 뼈와 살이 녹아버려도 좋다.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라고 거듭 다짐을 밝혔다.

9명의 스님이 천막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에서 자물쇠로 문을 잠갔다. 안에는 화장실이 하나 있고, 음식은 작은 창을 통해서만 들어간다. 내년 봄, 출입문 자물쇠가 풀릴 때 겨울 석 달 품고 품었을 이들의 화두는 과연 무슨 꽃으로 피어날까.

위례=백성호 기자

vangogh@joongang.co.kr

한복 입은 미셸 오바마… 미국 사로잡은 한국 그래피티

아티스트 ‘로열독’ 심찬양

한국적 소재로 미국서 큰 주목 받아 LG U+ 아이폰11 프로 광고 모델로 “그래피티의 매력은 우연성과 평등”

흑인, 여성, 그래피티. 이 세 가지 단어에서 떠오르는 편견을 깬 작품으로 세계적 아티스트로 떠오른 이가 있다. ‘로열독’이란 예명으로 미국에서 활동 중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심찬양(30)씨다. 그래피티란 길거리 벽면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리는 그림을 말한다. 한국을 찾은 그를 지난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인터뷰했다.

심씨는 미대 중퇴 후 필리핀 신학대에 입학했지만 2년 만에 중퇴했다. 고3 때 취미로 시작한 그래피티의 꿈을 접지 못해서다. 2016년 무비자로 그래피티의 본고장인 미국 땅을 밟았다.

심씨는 미국 생활 한 달 반 만에 ‘흔들리며 피는 꽃’으로 주목을 받았다. 한복을 입은 흑인 여성에 한글로 된 캘리그



1 한복 입은 미셸 오바마를 그린 로열독(심찬양) 작가의 작품. 2 지난 10월 미국 LA에서 LG유플러스와 애플 아이폰11 프로 공동 광고를 위해 다운타운 뮤직센터의 가로 30m, 세로 15m 규모의 대형 벽면에 한복을 입은 외국인 여성을 그리고 있는 장면.

래피를 결들인 작품이다. 그는 한복 입은 흑인 여성과 한글을 주제로 한 자신만의 정체성을 구축하게 된다. 세계적인 팝스타 리한나가 심씨의 그래피티를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우하면서 화제가 됐고, 한복을 입은 미셸 오바마의 그래피티로 또 한번 주목을 받았다.

이방인인 심씨가 그래피티의 원조국에서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심씨는 “그래피티에서 외설적으로만 표현되던

흑인 여성을 한복을 통해 예를 갖춰 표현한 것에 사람들이 감동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무시 받아왔던 것에 대한 상처와 회복, 화해 같은 메시지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그래피티의 매력은 ‘우연성’과 ‘평등’이다. 그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강렬한 그림에 압도되는 되는 점이 첫 번째 매력”이라고 꼽았다. 이어 “세



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소유할 수 없고, 직접 거리로 나와서 작품을 봐야 한다는 점에서 평등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래피티의 가장 큰 매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고 한다. 실제 그는 최근 LG유플러스의 아이폰11 프로 광고에 모델로 출연하면서 6일 동안 쉬지 않고 작품을 완성했다. 하지만 해당 작품은 건물주의 사정 때문에 촬영 직후 철거되는 처지에 놓였다. 그는 ‘그림에 미안해서’ 철거 전일까지

도 밤새 디테일을 완성해 나갔다. 해당 작품은 LG유플러스의 아이폰11 프로 광고와 스마트폰 속 사진으로만 남았다. 그는 “그래피티 작품은 한순간에 빛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더 많이 빛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린 청와대×아티스트 콜라보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악수 장면을 담은 그래피티로 또 한번 화제가 됐다. 그는 “환대를 주제로 그린 그림인데 일부 사람들에게겐 환대를 못받는 그림이 됐고, 내 그림을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흑인 여성,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아이들 등 소외된 계층을 주제로 한 그림을 계속 그려나갈 생각이다. 그는 “여기에 한복과 한글 등 한국적인 것의 결합을 통해 작품에서 아름다운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제16938호 40판 +